

時 · 論



이 희 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시민대중 대신 이해조(李海朝)문학비를 건립하자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이라도 우리 포천의 시민들이 찾아 주어야 할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농(東農) 이해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롭게 인식 하고자 언급해 본다.

이해조(李海朝)는 1869. 2. 27 경기 포천에서 출생하여 1927. 5. 11 경기 포천 신북면 신령리에 묘를 모신 분이다. 그는 이인직과 더불어 신소설의 대표 작가이며, 봉건적 백성상을 근대적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국권회복의 방법이라 주장했다. 분관은 정주, 필명은 우산거사(牛山居士)·선음자(善飮子)·하관생(遐觀生)·석춘자(惜春子)이다. 호는 동농(東農)·열재(悅齋)이다. 인평대군의 10대손으로 아버지 철옹(哲翁)과 어머니 청풍김씨(淸風金氏)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재만은 대원군의 참모로 활동하다 1883년 민씨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다.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워 19세에 과거 초시에 합격했으나 신학문과 과거 공무사를 조직해 국제보상연맹회 모금운동을 벌였다. 1908년 대한협회 교육부 사무장 및 평의원으로 활동했고, 기호학회에 가입해 기관지 <기호학회회보> 편집인을 맡는 한편 기호학교 교감을 역임했다.

한말에는 애국계몽운동에 기여했으나 한일합병 이후 일제의 관직인 중추원 의관을 지냈다. 국악에 조예가 깊어 <춘향전>·<심청전>·<흥부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을 <육중화>·<강상편>·<연의 각> 등으로 개작했다. 1927년 뇌일혈로 죽었으며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 안장되었다. 또한 그의 작품(잡담 태상(苔上苔)(1906)에서 <강명화실기 康明花實記(1925)에 이르기까지 40여 편을 써서 신소설 작가 중 가장 방대한 양을 남겼다. 초기에 발표한 <고목화>(1907)·<빈상설 上雪>(1907)·<구마검>(1908)·<자유종>(1910) 등에는 작가의 개화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고목화>는 과부 청주

집과 권진이 신분을 넘어서 결혼하는 과정을 그렸고,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빈상설>은 구소설적 요소가 잔존한 채 자유결혼관·계급타파 등의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장자(莊子)의 <소미추>에 영감을 받아 쓴 <구마검>은 미신타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작 <자유종>에서도 미신타파는 누누이 언급된다. <자유종>은 다른 작품에 비해 40쪽으로 그 분량은 적으나 봉건제도에 비판을 가하는 작가의 개화주의가 잘 드러나 있다. 신철현·이매경·홍국란·강금운 4명의 여자가 등장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교육 및 사회풍속 개선 등을 토론한다. 표제에 '토론소설'이라 써여 있으며, 내용이 정치적으로 하여 정치소설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그의 계몽사상은 한국 근대사상의 맹인인 실학사상, 특히 이익과 청나라 법법파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외에 <홍도화>(1908)·<원앙도>(1909)·<박정화 薄情花>(1910) 등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관리들의 부패, 인신매매, 개가문제 등의 계몽의식을 담고 있다.

한일합병 직후에 발표한 <만월대>(1910)·<화세계>(1911) 등에서 일제와 타협한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그려냈는가 하면, 갑오개혁으로 몰락한 중인층의 딸이 화류계에 팔려가는 <모란병>(1911)과 갑오농민전쟁을 배경으로 관리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화의 열>(1911)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화의 열> 끝에서 소설은 '빙공촬영(憑空攝影)'이며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란 한 점으로 미루어 소박하나마 소설에 대한 견해를 지녔던 듯하다. 1912년 <구미산>을 발표한 이후에는 친일을 드러내는 작품을 썼으며, 그 외 <빈상설 上雪>(1907)·<구마검>(1908)·<자유종>(1910) 등에는 작가의 개화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고목화>는 과부 청주

각지에는 자기지역 출신의 시인, 작가의 생각과 작품세계를 체계화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상당한 호응 속에 상품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으며 후세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또한 그 인물에 대한 많은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자기 지역마다 역사 속에 큰 인물을 더 이상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먼지 속에 잠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우리 포천은 지금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가치와 무가치의 반전으로 인한 선비의 발언권 약화로 고유의 울골은 직언이 굴절되어 있다. 역사적인 근거와 타당한 명분을 잃은 상징물의 건립은 경북궁 중건과 같이 백성의 피와 땀을 약탈할 뿐이다. 현재 포천에 살고 있는 모든 포천시민들은 시민을 위한 범종의 건립이 중요한지 시민의 무관심으로 한국 신문화의 거두이신 우리포천 출신의 문학가 이해조의 자리를 찾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은 앞 다투어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도 마음을 바로 하여 포천시민의 힘으로 자랑스런 동농(東農) 이해조님의 문학비를 건립하자. 그리고 학문적으로 체계화 하고 시정이나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자.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생각도 보완하여 문화상품화 하자. 그러면 역사에 오래 남는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미 없는 범종의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뜻깊은 문학비 건립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주민의 아픈 마음을 자극하지 말자. 어느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할말은 해야겠다. 하루속히 포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자리에 다른 상징물 제작에 앞서 이해조 문학비를 건립하여 그가 쌓은 업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폄하되고 굴곡된 역사의 물결기를 바로잡아 주고 뜻을 기리는 것이 우리시민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구겨진 자존심을 일부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기고

‘프리즘으로 본 한국’

- ⑤또, 싸움소리에 잠이 깨다



박 석 호
갈월중학교 근무

물건 사라 다니느라 피곤도 하고, 추운 날씨에 적응도 되지 않아 아침나절 재래 시장에서 사온 식료품으로 요리해서 밀반찬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십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티브이방송을 켜내구에서 일어난 참사 사고가 특별 뉴스로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하면서 너무나 끔찍스러워 스위치를 꺼 버렸다.

내가 하필 한국에 오자마자 저런 대형 사고부터 봐야하나 생각하며, 심심하면 보도되는 한국의 발전상과 세계무역대국이라고 소개는 하면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를 꼬집어 내 불쌍한 나라를 만들어 기분을 상하게 한 한국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임이 틀림없이 보였다.

사고 진상이 밝혀지면 또 부정부패와 연결된 어떤 결론도 나올 것이고,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의 세월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긴 세월이 흘러 돌아온 조국 현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 커 잠이나 자려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새 잠이 들어 잠에 빠져 있는데,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

야”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이번에는 시장상인들끼리 트럭에 실어온 물건 값을 가지고 큰소리로 다투는데 듣기도 거북스런 상선 큰 목숨을 해대며 서로 밀고 있는게 아닌가!

조국에 돌아온 두 번째 밤에도 싸움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좋을 리 없었다. 조그만 일 자기고도 싸우기 좋아하는 터키 사람들보다 더 한국 사람들이 고약한 성질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몇 시인데 저러나 하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네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목발을 붙잡고 싸우기를 이십분정도 했을까.

옆에 있던 몇 사람이 싸움을 말리는 것 같더니 드디어 조용해졌다. 어두운 새벽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싸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아마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저러겠지, 반찬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십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티브이방송을 켜내구에서 일어난 참사 사고가 특별 뉴스로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하면서 너무나 끔찍스러워 스위치를 꺼 버렸다.

내가 하필 한국에 오자마자 저런 대형 사고부터 봐야하나 생각하며, 심심하면 보도되는 한국의 발전상과 세계무역대국이라고 소개는 하면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를 꼬집어 내 불쌍한 나라를 만들어 기분을 상하게 한 한국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임이 틀림없이 보였다.

사고 진상이 밝혀지면 또 부정부패와 연결된 어떤 결론도 나올 것이고,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의 세월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긴 세월이 흘러 돌아온 조국 현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 커 잠이나 자려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새 잠이 들어 잠에 빠져 있는데,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

‘프리즘으로 본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호주로 이민을 떠나 17년간 생활한 후 다시 조국에 돌아온 박석호씨가 한 국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독·자·기·고



고향생각 응개개울

조귀순(재경포천시민-경기 부천)

젓빛 하늘이 초가지붕 옥마루까지 내려앉았다. 지붕위의 박순에 하얀 꽃이 피고 감만 한 박이 맺혔다. 한나절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이따금 천둥과 번개도 친다.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열린 ‘지지직’ 거리는 라디오를 끈다. 그건 우리 집 불뿔이다. 서울로

돈벌러 간 큰언니가 거의 하나도 안 쓰고 모아 아버지께 송아지 한 마리 사드리고 몇 달 후에 사왔다. 마을 전체에 몇 대 없었다.

학교엘 갔다면 지금 산수 시간이다. 숙제를 네 쪽이나 풀어 써야 하는데 못했으니 그건 다행이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를 가려면 개울을 두개 건너야 한다. 응개개울 물이 불어나면 4H클럽 오빠들이나 마을 아저씨들이 업어 건너 주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퍼부는 비 때문에 어른들도 건널 수가 없다고 했다. 게다가 마차마(가산면 우금리)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놓았단다.

어머니는 커다란 대바구니에 가득 담긴 강낭콩을 간다. “엄마랑 같이 강낭콩이나 까자.” “재미없어.” “찬장 안의 소금 주라” 나는 꿀이 냈다. 뒤란 너머 집에서는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린다. 연년생이기도 하고 두 살 터울밖에인 영숙이네 사남매는, 친구인 내가 없어도 너무 재밌다. 우는 소리도 정겹지만 하니 그 집엘 가고 싶은 거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리신다. 아줌마 아저씨가 비 오는 날엔 모처럼 쉬느라 주무실 텐데, 내까지 가서 함세하면 방구들이 꺼지고 집이 떠나간단다. 어리다고 데려가지 않고 혼자만 놀러 간 언니가 아속하다.

“이거나 만들어 봐.” 어머니가 덜 말라 녹녹한 강낭콩 껍질로 방식을 만드셨다. 강낭콩 껍질을

반으로 접어 서로 열십자가 되게 엮가꾸로 끼워 만드는 거다. 그걸 처음본 건 아니다. 리면방 봉지를 셀레민트쯤 만하게 접어서 아주 커다란 방식을 만들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담배 종이를 탁탁 떨어놓았다가도 만들었다. 저게 배비를 받쳐놓고 겨울에 질화로 깔개로 썼던 낡은 것이 아직 마루 끝에서 거미줄이 쳐진 채 있다. 몇 개 만들었지만 곧 싫증이 나 만드는 게 신통치 않다. 어머니가 슬그머니 일어나 시렁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신다. 어머니 뒤편이었던 것을 드시지 않고 숨겨놓았던 ‘리면방’이다.

우르르 쾅--요란하게 다시 천둥이 치고 회반죽거리는 번개에 하늘이 갈라질 듯 했다.

“무슨 놈의 비가 얼마나 물러구 이럴까. 응개개울이 멀쩡하러나 모르겠네.”

응개개울 물이 넘쳐야 내일도 학교에 안갈 텐데... 나는 리면방만 먹고 있었다. 30년도 더 지난 옛이야기이다. 새마을운동으로 다리를 놓았을 땐 정말 얼마나 근사했는지 모른다. 지난 추석 지나가는데 문득 옛 생각이 나 유심히 보았다. 승용차가 지나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할 만큼 낡기도 했지만 여전히 작아보이던지...

고유가 시대의 현명한 선택
볼케노 전기온풍기 유류온풍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5평형 7평형
DK-4005F / DK-4007F
권장소비자가격: 410,000 / 45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기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1φ 220V(전원코드형)
· 소비전력: 2.7KW/hr / 3.2KW/hr
· 크기(WXDH): 400×300×730
395×300×800

10평형 12평형
DK-4010F / DK-4012F
권장소비자가격: 682,000 / 737,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기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1φ 220V(전원코드형)
· 소비전력: 3.7KW/hr / 5KW/hr
· 크기(WXDH): 400×250×1,000

55평형 75평형
DK-4055R / DK-4075R
권장소비자가격: 2,180,000 / 2,56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기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올이온청정기능
· 3φ 380V
· 소비전력: 23KW/hr / 30KW/hr
· 크기(WXDH): 700×400×1,860

40평형
DW-150H
권장소비자가격: 93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
· 예약운전기능
· 원격외선 방식기능
· 주유경보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연료탱크용량: 40 l
· 연료소모량: 1.5 l / hr
· 크기(WXDH): 1,300×320×1,060



LG냉난방

Tel. 031)541-0441~2. 542-3597

H.P. 017-238-7825

· 대표 · 박 명 복